영어어문교육 *제26권* 4호 2020년 겨울
https://doi.org/10.35828/etak.2020.26.4.61

수여동사(Dative Verbs)의 재음미*

김 용 명
(안동대학교)

Kim, Yong-Myeong (2020). Revisiting dative verb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6*(4), 61-78.

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and Cowan (2013) pointing out that IL (interlanguage) learners have difficulty in coupling dative verbs with their structural patterns. In response to this problem, this study analyzes dative verbs in terms of c-selection and s-selection proposed by Fromkin, Rodman and Hyams (2014). The analysis shows that dative verbs have [+transfer] semantic feature which consists of [Agent], [Theme], [Goal]/[Benefactive] semantic roles, and they can be divided into transitive datives (e.g. *explain, fix*) and ditransitive datives (e.g. *give, buy*). The former can be realized as what we call the preposition pattern (i.e., S+V+DO+*to/for*+IO) not as what we call the dative movement pattern (i.e., S+V+IO+DO). The latter can be realized as the two patterns and the one of the two can be preferred in terms of the end-focus and the end-weight principle. In a sense, the analysis may be a 'linguistic intuition' to the dative verbs. Thus, the IL learners can develop this intuition in acquiring the dative verbs, hence minimizing the frequency of the errors prone to occur in the process of acquiring the verbs.

[dative verbs/c-selection/s-selection/semantic feature/linguistic sense]

Ⅰ. 서론

수여동사(Dative verbs)는 직접 목적어(direct object, 이하 DO)와 간접 목적어(indirect object, 이하 IO)를 동시에 가지는 동사를 말한다. 수여동사는, 다음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지닌다.

(1) a. He **explained** the regulation **to** me.

* 본 논문은 2019년 안동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019-2020)

b. He **fixed** the broken car **for** me.
c. She **gave** the book **to** me.
d. She **bought** the computer **for** me.
e. He **gave** me a computer.
f. He **bought** me a book.
g. He **charged** me 100 dollars.
h. She **forgave** him his rackless behavior.

(1)의 수여동사의 다양한 구조를 다음 (2)와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2) a. S+V+DO+*to/for*/*of*+IO
b. S+V+IO+DO

(2a)의 구조를 전치사 다음에 IO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전치사 여격 유형(prepositional dative pattern)'이라고 하며, (2b)의 구조를 전치사 다음의 IO를 DO 앞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에서 '여격 이동 유형(dative movement pattern)'이라고 한다. 수여동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따라 *explain, fix*와 같은 동사는 (2a)의 전치사 여격 유형만 취하며, *charge, forgive*와 같은 동사는 (2b)의 여격 이동 유형만 취하는 반면, *give, buy*와 같은 동사는 (2a)과 (2b)의 구조를 모두 취할 수 있다. 문용(2015), Celce-Murcia와 Larsen-Freeman(1999), Cowan(2013), Kim(2008, 2013)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는 수여동사 습득 과정에서 (2)의 구조를 과일반화(over-generalization)하여 다음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3) a. *She **explained** *me the regulation*.
b. *He **fixed** *me the broken car*.
c. *He **gave** a book **for** me.
d. *He **bought** a computer **to** me.
e. *He **charged** 100 dollars **to** me.
f. *She **forgave** his rackless behavior **for** him.

본 연구에서는 중간언어 학습자들의 수여동사의 습득 과정에서 범하는 (3)과 같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Fromkin, Rodman과 Hyams(2014)와 Haegeman과 Gueron(1999)이 제안한 다음 (4)의 c-selection과 (5)의 s-selection의 개념을 토대로(상세한 설명은 2장 참조) 수여동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재분석하고자 한다.

(4) 수여동사는 어떤 범주의 논항(arguments)을 c-select하는가?
(5) 수여동사는 어떤 의미역(semantic roles)과 의미자질(semantic features)을 s-select하는가?

이를 부연 설명하면, (4)의 c-selection에 따라 유형별 수여동사의 통사적 특성을, (5)의 s-selection의 따라 유형별 수여동사의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간언어 학습자들이 수여동사의 습득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의 요인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수여동사 습득에 대한 일종의 언어적 직관(linguistic intuition)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2장에서는 c-selection과 s-selection의 이론적 틀을 개괄할 것이며, 3장에서는 c-selection과 s-selection을 유형별 수여동사에 적용하여 이를 통사·의미적 특성 관점에서 재분석할 것이며, 4장에서는 실제 대화/담화 상황에서 수여동사의 사용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수여동사 습득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한 문장에서 동사가 갖게 되는 명사구(Noun Phrase, 이하 NP)를 논항(argument)라고 한다. 또한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는 동사가 몇 개의 논항을 그 보어로 취하는가를 말한다. 부연 설명하면, 자동사(intransitive verbs)는 한 개의 논항(즉, 주어)을, 타동사(transitive verbs)는 두 개의 논항(즉, 주어와 목적어)을, 이중 타동사(ditransitive verbs)는 세 개의 논항(즉,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을 취한다. 이와 같은 논항 구조는 c-selection에 따라 동사의 통사적 특성을, s-selection에 따라 동사의 의미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C-selection은, Aarts(2018)가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라고 부른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동사의 통사적 특성에 따라 그 동사가 어떤 범주를 논항으로 선택해야 하는가를 말한다. 이와 같이 c-selection을 통해 동사와 그 논항 간의 의미관계는 의미역 부여 규칙(semantic role assigning rule)에 따라 결정된다. 의미역 부여란 문장에서 동사가 주어, 목적어 등과 같은 논항에 의미역을 부여하여 동사와 논항 간의 의미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6)의 예문을 살펴보자.

(6) a. The boy kissed the girl.
[Agent] [Theme]

b. John loves that style.
[Experiencer] [Stimulus]

c. Mary sent the flower to John.
[Agent] [Theme] [Goal]

d. Mary cooked the meat for her kid.
[Agent] [Theme] [Benefactive]

e. *She put her bag.
[Agent] [Theme]

(6a)에서 동사 *kiss*는 NP *the boy*에 키스의 행위자로서 [Agent] 역을 부여하며, NP *the girl*에 키스를 받는 자로서 [Theme] 역을 부여하고 있다. (6b)에서 동사 *love*는 NP *John*에 감정(즉,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의 감정)의 경험자로서 [Experiencer] 역을,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NP *that style*에 [Stimulus] 역을 부여한다. (6a)와 (6b)에서 보듯이, 타동사라고 하더라고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한 의미역이 부여될 수 있다. (6c)에서 이중타동사 *send*는 NP *Mary*에 [Agent] 역을, NP *the flower*에 [Theme] 역을, NP *John*에 장소나 소유의 도착점으로서 [Goal] 역을 각각 부여한다. (6d)에서 이중타동사 *cook*은 NP *Mary*에 [Agent] 역을, NP *the meat*에 [Theme] 역을, NP *her kid*에 동사의 행위로 부터 혜택이나 수혜를 받는 자로서 [Benefactive] 역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6e)에서 보듯이, 동사 *put*은 NP와 PP를 c-select해야 하는데, NP *her bag*만을 취하고 이를 둘 곳, 즉, 장소를 나타내는 [Locative] 역을 부여할 전치사구(prepositional phrase, 이하 PP)가 빠져있어 비문법적 문장이 된다. 이와 같이 c-selection 분석을 통해 문장이 문법적인지 비문법적 문장인지 파악할 수 있다.

S-selection은, Aarts(2018)가 선택적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이라고 부른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그 동사가 어떤 의미자질을 지닌 논항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말한다. 의미자질이란, 마치 물을 원자 기호 H2O로 분석하듯이, 가령, *mother*를 의미자질로 분해하여, [-male], [+adult], [+married], [+siblings]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다음 (7)의 예문을 살펴보자.

(7) a. The man slept on the sofa.
[+human] [+concrete]

b. She put her bag on the desk.
[+human] [+concrete] [+concrete]

c. Mary gave the present to the girl.
[+human] [+concrete]/[+transferable] [+human]

d. !Jane kicked the offer.
[+human] [+abstract]

(7a)에서 동사 *sleep*은 의미적 특성상 [Agent] *the man*이 [+human] 자질을, [Locative] *the sofa*가 [+concrete] 의미자질을 각각 s-select하고 있으므로 의미적 문장이 된다. (7b)에서 동사 *put*은 의미적 특성상 [Agent] *she*가 [+human] 자질을, [Theme]의 *her bag*이 [+concrete] 자질을, [Locative]의 *the desk*가 [+concrete] 자질을 각각 s-select하고 있으므로 의미적 문장이 된다. (7c)에서 동사 *give*는 의미적 특성상 [Agent] *Mary*가 [+human] 자질을, [Theme] *the present*가 [+concrete]/[+transferable] 자질을, [Goal] *the girl*이 [+human] 자질을 각각 s-select하고 있으므로 역시 의미적 문장이 된다. 그러나 (7d)에서 보듯이, 동사 *kick*은 의미적 특성상, 그 목적어로 [+concrete]/[+kickable] 자질을 취해야 하는데, [-concrete]/[-kickable]을 s-select했으므로, 쉽게 말해, '찰 수 없는 것'을 그 목적어로 취했으므로 비의미적 문장(anomalous sentence)이 된다(!는 비의미적인 문장을 나타냄). 이와 같이 s-selection 분석을 통해 문장이 의미적 문장인지 아니면 비의미적 문장인지 파악할 수 있다.

Ⅲ. 수여동사의 재음미

본 장에서는 c-selection과 s-selection을 개념을 이용하여 수여동사의 유형별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타동사적 수여동사(Transitive Dative Verbs)

전치사 여격 유형만을 허용하는 타동사적 수여동사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논의해보자.

(8) a. She **explained** *the regulation* **to** *me*.
b. He **fixed** *the broken car* **for** *me*.

(9) a. *She **explained** *me the regulation*.
b. *He **fixed** *her the broken car*.

(8)에서 보듯이, (8a)의 동사 *explain*은 전치사 *to*+IO로 구성되는 전치사 여격 유형을, (8b)의 동사 *fix*는 *for*+IO로 구성되는 전치사 여격 유형을 각각 허용하지만, (9)에서 보듯이, 두 동사 모두 S+V+IO+DO의 여격 이동 유형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 *explain*과 *fix* 같은 수여동사는 전치사 여격 유형만 취하고, 여격 이동 유형은 취할 수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을 얻기 위해, (9)의 예문에 c-selection을 적용한 (10)의 분석과 s-selection을 적용한 (11)의 분석을 살펴보자.

(10) a. [$_{VP}$ [$_{V}$ explain] [$_{NP}$__]] ([$_{PP}$ to [$_{NP}$__]])

b. [$_{VP}$ [$_{V}$ fix] [$_{NP}$__]] ([$_{PP}$ for [$_{NP}$__]])

(11) a. She **explained** *the regulation* **to** *me*.
[Agent] [Theme] [Goal]

b. He **fixed** *the broken car* **for** *me*.
[Agent] [Theme] [Benefactive]

먼저 통사적 관점에서 보면, (10)의 c-selection 분석에서 보듯이, 동사 *explain*과 *fix*는 어원적으로 타동사이다. 이에 따라, 동사 *explain*과 *fix*는 목적어로서 NP를 의무적으로 c-select하고, 수의적으로 PP를 c-select할 수 있다. 또한 PP를 수의적으로 s-select한다는 것은, 가령, *She explained the regulation*에서 보듯이, 동사 *explain*과 *fix*가 NP만을 c-select하고 PP를 c-select하지 않아도 완전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의미적 관점에서 보면, (11)의 s-selection 분석에서 보듯이, *explain*과 *fix* 같은 수여동사는 [+transfer]라는 의미자질을 갖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전하다/이동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explain*과 *fix*는 [Agent], [Theme], [Goal]/[Benefactive] 등의 의미역을 각 논항에 부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a)의 분석에서 보듯이, 동사 *explain*은 'explaining action'을 행하는 주어 She에 [Agent] 역을 부여하고, 'explaining action'을 받는 DO *the regulation*에 [Theme] 역을 부여하고, 'explaining action'이 완전히 전이(completed transference)되는 IO *me*에 [Goal] 역을 부여하며, 이를 *to*+IO, 즉, *to me*로 실현한다. 또한 (11b)의 분석에서 보듯이, 동사 *fix*는, (11a)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 *He*에 [Agent], DO *the broken car*에 [Theme]을 부여지만, (11a)의 동사 *explain*과 달리, 'fixing action'의 결과가 IO *her*로 완전히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재적으로 전이(potential transference)될 것을 전제하므로, 즉, 이를 받을 잠재적 수혜자로 간주하므로 IO *her*에 [Benefactive]를 부여하고, 이를 *for*+IO, 즉, *for me*로 실현한다.

이제 서두에서 제시했던 질문 '왜 *explain*과 *fix*와 같은 수여동사는 (8)과 같은 여격 이동 유형은 취할 수 없는가?'에 대해 논의해보자. 이를 위해, (9)의 예문에 c-selection을 적용한 (12)의 분석과 s-selection을 적용한 (13)의 분석을 살펴보자.

(12) a. *[$_{VP}$ [$_{v}$ explain] [$_{NP}$__] [$_{NP}$__]]
b. *[$_{VP}$ [$_{v}$ fix] [$_{NP}$__] [$_{NP}$__]]

(13) a. *She **explained** *me the regulation*.
[Agent] [Goal] [Theme]
[+human] [+human] [+concrete]

b. *He **fixed** *me the broken car*.
[Agent] [Benefactive] [Theme]
[+human] [+human] [+concrete]

먼저 통사적 관점에서 보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사 *explain*과 *fix*는 어원적으로 타동사이므로, 다음에서 논의할 이중타동사적 수여동사인 *give, buy*와 달리, 두 개의 NP를 c-select할 수 없는데, (13)의 c-selection 분석에서 보듯이, 두 개의 NP를 c-select하고 있으므로 (9)의 예문은 비문이 된다.

다음 의미적 관점에서 보면, 앞서 논의한 (11)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동사 *explain*과 *fix*는 [+transfer] feature를 가지며, 이에 따라 (13a)의 분석에서 보듯이, 동사 *explain*은 주어 *She*에 [Agent]를 부여하고, IO *me*가 전이를 받을 수 있는 [+human] 의미자질을 취하고 있으므로 [Goal]을 부여할 수 있으며, DO *the regulation*에 [Theme]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13b)의 분석에서 보듯이, 동사 *fix*는, 주어 *He*에 [Agent]를, IO *her*가 잠재적 전이를 받을 수 있는 [+human] 자질을 취하고 있으므로 [Benefactive]를 부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explain*과 *fix*와 같은 수여동사는 (9)와 같은 S+V+IO+DO의 여격 이동 유형을 취할 수 없는 근거는 의미적 관점에서 s-selection은 만족하고 있지만, 통사적 관점에서 c-selection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중간언어 학습자들은 (9)과 같은 오류를 범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9)과 같은 S+V+IO+DO의 여격 이동 유형이 비록 c-selection을 어지지만, s-selection을 만족시킴으로서 의미적 측면에서는 이를 의미적 문장으로 간주하여 이 같은 오류를 지속적으로 범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중타동사적 수여동사(Ditransitive Dative Verbs)

전치사 여격 유형과 여격 이동 유형 둘 다 허용하는 수여동사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관해 논의해보자.

(14) a. He **gave** *a book* **to** *me*.
b. He **bought** *a computer* **for** *me*.

(15) a. He **gave** *me a book*.
b. He **bought** *me a computer*.

동사 *give*는, (14a)에서 보듯이, *to*+IO의 전치사 여격 유형을, 동사 *buy*는, (14b)에서 보듯이, *for*+IO의 전치사 여격 유형를 취하고, 또한 (15)에서 보듯이, *give, buy*는 모두 IO를 DO 앞으로 이동한 여격 이동 유형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give, buy* 등과 같은 수여동사는 앞서 논의했던 *explain, fix*와 달리 *to*+IO, *for*+IO의 전치사 여격 유형과 여격 이동 유형을 모두 허용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을 얻기 위해, 먼저 (14)의 예문에 c-selection을 적용한 (16)의 분석과 s-selection을 적용한 (17)의 분석을 살펴보자.

(16) a. [VP [V give] [NP__]] [PP to [NP__]]
b. [VP [V buy] [NP__]] [PP for [NP__]]

(17) a. He **gave** *a book* **to** *me*.
[Agent] [Theme] [Goal]

b. He **bought** *a computer* **for** *me*.
[Agent] [Theme] [Benefactive]

먼저 통사적 관점에서 보면, (16)의 c-selection 분석에서 보듯이, 동사 *give, buy*는 어원적으로 이중 타동사적 수여동사이므로 DO로서 NP를, IO로서 PP를 각각 c-select하고 있다. 또한 (17)의 s-selection 분석에 따르면, *give, buy*와 같은 수여동사는 [+transfer] 자질을 가지므로 각 논항에 [Agent], [Theme], [Goal]/[Benefactive] 역을 부여한다. 먼저 (17a)의 분석에서 보듯이, 동사 *give*는 주어 *He*에 [Agent]를 부여하고, DO *a book*에 [Theme] 역을 부여하고, DO *a book*이 IO로 완전한 이동을 전제하므로 IO *me*에 [Goal]을 부여한다. 또한 (18b)에서 보듯이, 동사 *buy*는, (17a)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 *He*에 [Agent], DO *a computer*에 [theme]을 부여지만, (17a)의

동사 *give*와 달리, DO *a computer*가 IO로 완전한 이동이 아니라 잠재적 이동을 전제하므로, 다시 말해, 잠재적 수혜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IO *me*에 [Benefactive]를 부여한다.

다음에서는 *give, buy, ask*와 같은 이중타동사적 수여동사가 구성하는 여격 이동 유형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논의해보자. (15)의 예문에 c-selection을 적용한 (18)의 분석과 s-selection을 적용한 (19)의 분석을 살펴보자.

(18) a. [$_{VP}$ [$_{V}$ give] [$_{NP}$__] [$_{NP}$__]]
b. [$_{VP}$ [$_{V}$ buy] [$_{NP}$__] [$_{NP}$__]]

(19) a. He **gave** *me a book*.
[Agent] [Goal] [Theme]
[+human] [+human] [+concrete]/[+transferable]

b. He **bought** *me a book*.
[Agent] [Goal] [Theme]
[+human] [+human] [+concrete]/[+transferable]

먼저 통사적 관점에서 보면, (18)의 c-selection 분석에서 보듯이, 동사 *give, buy*는 이중타동사적 동사이므로 두 개의 NP, 즉, DO로서 NP를, IO로서 NP를 c-select한다. 또한 의미적 관점에서 보면, 동사 *give, buy*와 같은 수여동사는 [+transfer] 자질을 가지므로 c-selection의 결과로 얻어진 두 개의 NP에 어순에 따라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각 NP가 지니고 있는 의미자질에 부합하게 의미역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a)에서 보듯이, IO *me*는 이동된 것을 받을 능력이 있는 [+human] 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동사 *give*의 특성에 따라 [Goal] 역이 부여된다. (19b)에서 보듯이, IO *me* 또한 이동된 것을 받을 능력이 있는 [+human] 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동사 *buy*의 특성에 따라 [Benefactive] 역을 부여한다. 한편 (19a)의 DO *a book*, (19b)의 DO *a computer*는 이동될 수 있는 [+concrete]/[+transferable] 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동사 *give, buy*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각 DO에 [Theme]이 부여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give*과 *buy*와 같은 이중목적 수여동사는 c-selection과 s-selection둘 다를 만족시키므로 (14)와 같은 S+V+DO+to/for+IO의 전치사 여격 유형과 (15)와 같은 S+V+IO+DO의 여격 이동 유형을 둘 다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용(2015), Celce-Murcia와 Larsen-Freeman(1999), Cowan(2013), Inagaki(1997), Kim(2008) 등의 연구에 따르면, 중간언어 학습자들은 *give*과 *buy*와 같은 수여동사의 습득과정에서 다음 (20)과 같은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20) a. *He **gave** *a book* **for** *me*.
b. *He **bought** *a computer* **to** *me*.

(21) a. *He **gave** *a book* **for** *me*.
[Agent] [Theme] *[Benefactive]

b. *He **bought** *a book* **to** *me*.
[Agent] [Theme] *[Goal]

(20)의 오류의 원인은, (21)의 s-selection 분석에서 보듯이, 동사 *give*와 *buy*가 지닌 의미적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give*와 같은 동사는 DO *a book*이 IO *me*로 완전한 이동을 전제함에 따라 [Goal]을 부여하고, 이를 *to*+IO 형식으로 실현해야하는 반면, *buy*와 같은 동사는 DO *a book*이 IO *me*로 잠재적 이동을 전제함에 따라 [Benefactive]가 부여하고, 이를 *for*+IO로 실현해야하는데, 이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수여동사 중에서 전치사 *to*와 *for* 둘 다 취하는 동사 *leave, bring*과 같은 동사의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22) a. His father **left** *a fortune* **to** *his son*.
b. Have you **left** *anything to eat* **for** *me?*

(22)에서 동사 *leave*는 *for*와 *to* 둘 다 택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 (22a)에서 *leave*는 IO에 [Goal]이 부여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치사 *to*를 취함으로서 '유산을 아들에게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22b)에서 *leave*는 IO에 [Benefactive]가 부여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치사 *for*를 취함으로서 '나를 위해 먹을 것을 남겨놓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give*와 *buy*와 같은 이중타동사적 수여동사의 전치사 여격 유형과 여격 이동 유형 간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23) a. *He **gave** *a warm smile* **to** *me*.
b. He **gave** me *a warm smile*.

(23)에서 보듯이, 동사 *give*는 S+V+DO+to+IO의 전치사 여격 유형과 S+V+IO+DO의 여격 이동 유형을 둘 다 허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3a)는 비문이고 (23b)는 정문일까? 이는 [Goal]의 명시성의 정도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23a)의 DO *a warm smile*은 [-concrete]/[-transferable] 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동될 수 없는 의미적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는 [Goal]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전치사 *to*와 양립할 수 없는데, 양립하고 있으므로 비문이 된다. 반면, (23b)의 경우, IO *me*는 전치사 *to*가 없는 비명시적 [Goal]을 취하고 있으므로 [-concrete]/ [-transferable]을 갖고 있는 *a warm smile*과 양립할 수 있으며, 직접적 이동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 이동을 전제하는 추상적 또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언어 학습자의 혼동을 야기하는 *donate*와 *let*와 같은 수여동사의 특성을 살펴보자.

(24) a. He **donates** *500 dollars* **to** *the orphanage*.
b. *He **donates** *the orphanage 500 dollars*.

(24)에서 *donate, let* 같은 수여동사는 S+V+DO+*to*+IO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Goal] 역의 명시성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24)의 동사 *donate*는 의미적 특성상 기부자(donator), 기부금(donative), 피기부자(donatee)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적 특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2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Goal]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to*+IO 형식을 취하고 있어 정문이지만, (2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S+V+IO+DO의 여격 이동 유형으로 나타낼 경우, 피기부자의 명시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비문이 된다.

3. 이중 타동사(Ditransitive Verbs)

마지막으로 이중 타동사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논의해보자.

(25) a. He **charged** *me 100 dollars*.
b. She **forgave** *him his rackless behavior*.

(26) a. *He **charged** *100 dollars* **to** *me*.
b. *She **forgave** *his rackless behavior* **for** *him*.

동사 *charge, forgive*와 같은 이중 타동사는 (25)의 유형은 허용하지만, (26)의 유형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charge, forgive*와 같은 이중 타동사는 (26)의 유형은 취할 수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을 얻기 위해, 먼저 (25)의 예문에 c-selection

을 적용한 (27)의 분석과 s-selection을 적용한 (28)의 분석을 살펴보자.

(27) a. [$_{VP}$ [$_{V}$ charge] [$_{NP1}$__] [$_{NP2}$__]]
b. [$_{VP}$ [$_{V}$ forgive] [$_{NP1}$__] [$_{NP2}$__]]

(28) a. He **charged** *me 100 dollars*.
[Agent] [Theme1] [Theme2]
[+charger] [+chargee] [+chargable]

b. She **forgave** *him his rackless behavior*.
[Agent] [Theme1] [Theme2]
[+forgiver] [+forgivee] [+forgivable]

먼저 통사적 관점에서 보면, 동사 *charge, forgive*는 어원적으로 이중 타동사이다. 따라서 (27)의 c-selection 분석에서 보듯이, 동사 *charge, forgive*는 두 개의 NP를 c-select하고 있다. 그러나 *give, buy*와 같은 이중 타동사적 수여동사가 두 개의 NP를 DO와 IO로 실현시키는 것과 달리 *charge, forgive*와 같은 이중 타동사는 두개의 NP를 O1과 O2로 실현시킨다는 점이 다르다. 이런 차이는 의미적 관점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give, buy*와 같은 이중타동사적 수여동사가 [+transfer] 자질을 실현시키기 위해 DO에 [Theme]을, IO에 [Goal] 또는 [Benefactive]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charge, forgive*와 같은 이중 타동사는, (28)의 s-selection 분석에서 보듯이, O1과 O2에 둘 다에 [Theme1]과 [Theme2]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이중 타동사와 이중타동사적 수여동사와의 이런 차이는, 두 개의 목적어 중에서 하나를 생략하여 타동사로 전환한 다음 (5~6)과 (7~8)의 대조를 통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29) a. He **charged** me.
[Agent] [Theme1]

b. He **charged** 100 dollars.
[Agent] [Theme2]

(30) a. She **forgave** him.
[Agent] [Theme1]

b. She **forgave** his rackless behavior.
[Agent] [Theme2]

(31) a. ?He **gave** a book (to someone).
[Agent] [Theme] ([Goal])

b. *He **gave** me.
[Agent] [Theme]

(32) a. He **bought** a computer (for someone).
[Agent] [Theme] ([Benefactive])

b. *He **bought** me.
[Agent] [Theme]

(29~30)에서 보듯이, charge, *forgive*와 같은 이중 타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 중에서 어느 한 개를 생략해도 완전한 문장이 되지만, (31~32)에서 보듯이, *give, buy*와 같은 이중타동사적 수여동사는 그렇지 못하며, 특히, DO를 생략할 경우, 비의미적 문장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중타동사적 수여동사는 통사적으로 IO보다 DO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또한 의미적으로도 IO보다 DO에 더 의존하고 있으므로 DO가 생략될 때 의미적 손상이 더 크지만, 이중 타동사는 O1과 O2에 동일한 통사적 의미적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중에서 어느 하나를 생략해도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 타동사가 O1과 O2 둘 다를 취할 경우, 어순상으로 동사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을 먼저 취하고, 먼 것을 나중에 취하여 O1+O2, 즉, [Theme1]+[Theme2]로 고정된 어순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 (28)의 s-selection 분석을 다시 살펴보자.

(28) a. He **charged** *me 100 dollars*.
[Agent] [Theme1] [Theme2]
[+charger] [+chargee] [+chargable]

b. She **forgave** *him his rackless behavior*.
[Agent] [Theme1] [Theme2]
[+forgiver] [+forgivee] [+forgivable]

먼저 (28a)에서 보듯이, 이중 타동사 *charge*는 *He*에 [+charger] 자질을 지닌 [Agent] 역을 부여하고, O1 *me*에 [+chargee] 자질을 지닌 [Theme1]을 부여하고, O2 *100 dollars*에 [+chargable] 자질을 지닌 [Theme2]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중 타동사 *charge*는 (돈)지불할 피청구인(chargee)이 의미상으로 동사와 더 가깝기 때문에 이를 먼저 취하고, 이어서 청구액(cost)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28b)에서 보듯이, 이중 타동사 *forgive*도 *She*에 [+forgiver] 자질을 지닌 [Agent]를 부여하고, O1 *him*에 [+forgivee] 자질을 지닌 [Theme1]을 부여하고, O2 *his rackless behavior*에 [+chargable] 자질을 지닌 [Theme2]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중 타동사 *forgive*는 용서를 받을 사람(forgivee)이 의미상 동사와 더 가깝기 때문에 이를 먼저 취하고, 다음에 용서할 내용(죄, 잘못 등)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두에서 제시했던 질문, 왜 *charge, forgive*와 같은 이중 타동사는 (26)과 같은 전치사 여격 유형을 취할 수 없는가에 대한 가능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중타동사적 수여동사 *give, buy*가 IO 와 DO를 교체하여 S+V+DO+*to/for*+IO 구성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중타동사는 O1과 O2를 교체하여 소위 S+V+O2+*to/for*+O1의 전치사 유형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charge*과 *forgive*와 같은 이중 타동사가(26)의 구조, 즉, S+V+DO+*to*+IO의 여격 이동 유형을 취할 수 없는 근거는, (29)과 (30)의 분석에서 보듯이, c-selection과 s-selection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26)의 구조가 통사적 관점에서 c-selection을 어기고, 의미적 관점에서 s-selection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중간언어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26)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아마도 소위 '유도된 오류(induced errors)'라고 부른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문법서에서 *charge, cost, forgive, envy* 등과 같은 동사를 수여동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들 동사는 S+V+DO+*to/for*+IO 유형을 구성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중 타동사에 대한 이 같은 설명은 중간언어 학습자들에게 이중 타동사를 이중 수여동사로 잘못된 가설을 형성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이들은 (26)과 같은 오류를 지속적으로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Ⅳ. 대화/담화에서 수여동사의 사용

Cowan(2013)의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중간언어 학습자들은 수여동사의 전치사 여격 유형과 여격 이동 유형을 상당한 정도까지 구사할 수 있는 상급 단계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실제 담화 맥락에 맞지 않게 이 두 유형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언제 왜 이 두형 중, 어느 하나 유형이 선호되는지를 정보 구조화(information structuring)와 관련된 두 원칙, 즉, end-focus 원칙과 end-weight 원칙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Aarts, 2011. pp.314-336). End-focus 원칙은,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한 문장에서 'focus'를 받는 신정보(new information)를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given information)보다 어순상 'end', 즉, 문장의 뒤쪽에 배치하라는 원칙이다. 한편 end-weight 원칙은,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한 문장에서 'weight'것, 즉, 길고 복잡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짧고 단순한 정보보다 어순 상 문장의 뒤쪽에 배치하라는 원칙이다.

이제 실제 대화/담화에서 end-focus 원칙과 end-weight 원칙이 수여동사의 두 유형, 즉, 전치사 여격 유형과 여격 이동 유형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자.

(33) A: a. **What** did the twins **tell** mother?
b. **Who** did the twins **tell** all their secrets **to**?

B: a. The twins **told** mother *all their secrets*.
b. The twins **told** all their secrets **to** *mother*.

(34) a. John **gave** the kids long sausages *that had been roasted over an wood fire*.
b. ?John **gave** long sausages *that had been roasted over an wood fire* **to** the kids.

먼저 (33)의 예문을 통해 end-focus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33)의 대화 상황에서 speaker A가 (33Aa)의 *wh*-question으로 질문을 한다면, (33Aa)에서 *the twins, mother*는 구정보에 속하며, *wh*-phrase *what*의 답에 해당하는 어구, 즉, *all their secrets*가 신정보가 되며, 따라서 speaker B가 (33Ba)로 답한다면, end-focus 원칙을 따르는 것이지만, (33Bb)로 답한다면, 이를 어기는 것이다. 반면, speaker A가 (33Ab)의 *wh*-question으로 질문을 한다면, (33Bb)에서 *the twins, all the secret*는 구정보에 속하며, *wh*-phrase *who*의 답에 해당하는 어구, 즉, *mother*가 신정보가 되며, 따라서 speaker B가 (33Bb)로 답한다면, end-focus 원칙을 따르는 것이지만, (33Ba)로 답한다면, 이를 어기는 것이다. 다음 (34)의 예문을 통해 end-weight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34)에서 보듯이, IO *the kids*보다 DO *long sausages that had been roasted over an wood fire*가 보다 더 길고 복잡한 정보이다. 따라서 end-weight 원칙을 따르고 있는 (34a)이 이를 어긴 (34b)보다 더 자연스럽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Fromkin, Rodman, Hyams(2014)가 제안한 c-selection과 s-selection에 따라 유형별 수여동사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다음 (35~37)과 같이 제시한다.

(35) a. $[_{VP}\ [_{V}$ explain$]\ [_{NP}__]]\ ([_{PP}$ to $[_{NP}__]])$
[Theme] [Goal]

b. [VP [V fix] [NP__]] ([PP for [NP__]])
[Theme] [Benefactive]

(36) a. [VP [V give] [NP__]] [PP to [NP__]]
[Theme] [Goal]

b. [VP [V give] [NP__] [NP__]]
[Goal] [Theme]

c. [VP [V buy] [NP__]] [PP for [NP__]]
[Theme] [Benefactive]

d. [VP [V buy] [NP__] [NP__]]
[Benefactive] [Theme]

(37) a. [VP [V charge] [NP1__] [NP1__]]
b. [VP [V forgive] [NP1__] [NP2__]]

(35)에서 보듯이, *explain, fix*와 같은 타동사적 수여동사는 통사적으로 타동사이며, c-selection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NP를 c-select하고, 수의적으로 PP를 c-select하고, 또한 의미적으로 [+transfer] 자질을 가지므로 s-selection에 따르면, [Agent], [Theme], [Goal]/[Benefactive] 역이 부여된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간언어 학습자들은 *explain*과 *fix*와 같은 타동사적 수여동사를 발화로 실현하기 위해, 주어에 [Agent], 목적어에 [Theme]을 부여하여, 먼저 S+V+O를 실현시키고, 이어서 대화 상황에서 수의적 요소인 PP가 필요하다면, 다시 말해, 화자가 [Goal] role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S+V+O에 *to*+IO를 추가할 것이며, [Benefactive] role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S+V+O에 *for*+IO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또한 (36)에서 보듯이, *give, buy*와 같은 이중 타동사적 수여동사는 통사적으로 이중 타동사이며, c-selection에 따르면, NP와 PP를 c-select하여 S+V+DO+to/for+IO의 전치사 여격 유형을 구성할 수도 있고, 두 개의 NP를 c-select하여 S+V+IO+DO의 여격 이동 유형을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의미적으로 [+transfer] 자질을 가지므로 s-selection에 따르면, [Agent], [Theme], [Goal]/[Benefactive] 역이 부여된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간언어 학습자들은 *give, buy*와 같은 타동사적 수여동사를 발화로 실현하기 위해, [Agent], [Theme]과 [Goal]/[Benefactive] 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며, 이를 end-focus 원칙, 즉, IO와 DO 중에서 어느 것이 신정보인가에 따라 S+V+DO+to/for+IO의 구문으로 실현하거나 또는 S+V+IO+DO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간언어 학습자가 S+V+DO+to/for+IO 구조를 선택했다면, 각 개별 수여동사가 전치사 *to*를 취하는지 아니면, 전치사 *for*를 취

하는지 일일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수여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Goal] 역을 취하는지 또는 [Benefactive] 역을 취하는지에 파악할 것이며, 이에 따라 *to*+IO 또는 *for*+IO로 이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36)에서 보듯이, *charge, forgive*와 같은 이중 타동사는 목적어 두 개를 취하며, 이중타동사적 수여동사 *give, buy*가 IO 와 DO를 교체하여 S+V+DO+*to/for*+IO 구성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중 타동사는 O1과 O2를 교체하여 소위 S+V+O2+*to/for*+O1의 전치사 유형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Fotos와 Ellis(1991)가 제안한 소위 의식 발현 과업(conscious raising tasks, 이하 C-R 과업)에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C-R 과업의 구성 원칙에 따라 수여 동사에 관한 C-R 과업을 구성하고, 또 그 절차에 따라 이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 같이 구성되는 C-R 과업에 다음의 연구 결론이 포함될 것이다. 수여동사는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따라 타동사적 수여동사와 이중 타동사적 수여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수여동사는 의미론적으로 [+transfer] 자질을 가지며, 이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이동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Agent], [Theme], [Goal]/[Benefactive] 역을 필요로 한다. 타동사적 수여동사는 어원적으로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여격 이동 유형, S+V+IO+DO는 취할 수 없으며, 전치사 여격 유형, S+V+DO+to/for+IO만 취할 수 있다. 반면, 이중타동사적 수여동사는 어원적으로 이중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두 유형을 다 취할 수 있으며, end-focus 원칙과 end-weight 원칙에 따라 이 두 유형 중에서 어느 한 유형이 선호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어떤 점에서 수여동사에 대한 일종의 언어적 감각(linguistic sense)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간언어 학습자들이 이 같은 언어적 감각을 계발해나간다면, 수여동사의 습득과정에 생겨나는 오류의 빈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문용. (2015). *고급 영문법 해설*. 서울: 박영사.

Aarts, B. (2011). *Oxford modern English gramm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arts, B. (2018).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5th ed.). London: Palgrave.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2nd ed.). Washington, DC: Heinle & Heinle.

Cowan, R. (2013).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A Course book and reference guid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tos, S., & Ellis, R. (1991). Communicative about grammar: A task-based approach. *TESOL Quarterly, 25*, 605-628.

Fromkin, V., Rodman, R. & Hyams N. (2014). *An introduction to language* (10th eds.). US: Wadsworth, Cengage Learning.

Haegeman, L. & Gueron, J. (1999). *English grammar: A generative perspective*.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Inagaki, S. (1997). Japanese and Chinese learners' acquisition of the narrow-range rules for the dative alternation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34*(1), 92-109.

Kim,Y-M. (2008). Validation of the common metric scale (CM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1), 21-44.

Kim,Y-M. (2013). An IP-related syntactic developmental sequence (ISD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1), 157-176.

예시언어(Example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수준(Applicable Level): Secondary

김용명(교수)
안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Email: mencius@anu.ac.kr

Received: October 13, 2020
Reviewed: November 24, 2020
Revised version received: December 5, 2020